

# 통합특별법 국회 심의...지역·정부 '입법 전쟁' 돌입

### 387개 조문 검토보고서 "신중" 특례 vs 형평성...창과 방패 대결 도의회, 국립의대·병원 등 요청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가 5일 시작됐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국회 심의 기간 재정 지원 방안과 각종 특례 조항을 통합특별법에 담아내려는 반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어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과 정부가 치열한 논리를 앞세운 '입법 전쟁'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법을 상정해 법안 제1소위로 회부했다. 제정법인 특별법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9일 입법 공청회가 열리며, 이어 11-12일 법안소위 심사, 13일 행안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의 표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상정에 맞춰 공개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387개 조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정부가 검토·판단해야 할 신중한 대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다수 조항에서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및 세제 지원에 대해 "다만, 지속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다만, 기존 교육자치 제도와와의 정합성,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체계와의 관계,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다만, 통합특별시가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에너지·해상풍력 특례와 관련하여 "다만, 국가가 비용을 전부 또는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국가 재정 부담의 적정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항목마다 나열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정당성, 적정성, 종합적 고려 등을 해소할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나주·화순)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법안 심의할 예정인가'란 질문에 "지역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부분은 통합에 따른 특례와 재정 분권이다"며 "특례 부분은 정부와 협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빠진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자치구의 재정 분권, 시도의회 의원 정수 등을 충분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신 위원장을 방문해 통합



전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방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안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 전남도, 민간 참여 '생활 속 인권' 확산 나선다

### 취약계층 보호·의식 개선 13일까지 지원 단체 모집

전남도가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6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인권활동을 민간단체와 함께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중인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익적 인권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인권침해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핵심 방향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 역시 민간 참여 기반의 인권 행정을 강화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인권 관련 활동 실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인권 증진 활동을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다.

인권교육을 비롯 △취약계층 인권 보호 △지역사회 인권의식 개선 △인권문화 확산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우수 프로그램은 향후 전남도 인권정책, 인권교육 사업과 연계해 확산·활용할 계획이다.

이전제 전남도 지지행정과장은 5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현장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실천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전남도 인권센터(061-286-2395)로 하면 된다.

정근산 기자

## 최선국 도의원 "햇빛소득마을, 도시형 모델 발굴을"

### 전남도 선제 대응 등 촉구

전남도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맞춰 도시형 모델 발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최근 열린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참여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로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약 3만8,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도도 향후 5년



간 500곳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현재 사업 후보지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목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유휴부지,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여지가 있지만, 도시의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이나 공동체 기반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도시형 모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를 예로 들어 "1MW 규모 태양광 발전으로 월 1,000만원대 수익을 올려 공공급식 지원과 공영버스 운영 등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익 모델을 도시형으로 확장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통 여유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ESS 연계 등 현실적 보완책 마련과 함께 녹색에너지연구원의 협력을 통한 도시형 모델 컨설팅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 윤명희 도의원 "반값여행 전국 확대 등 적극 대응"

### 정부정책 호응 관광전략 주문

반값여행 전국 확대 등 정부 관광정책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최근 열린 전남도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



한 반값여행이 효과성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계획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남의 많은 시군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인 방문지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다극 체계로 확장하기 위

해 추진중인 지역거점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남도만이 가진 콘텐츠를 상품화해 수도권과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등 확장형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특화된 콘텐츠 발굴과 함께 관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이라며 "전남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 숙박 인프라가 중·서부권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맛있게 농심**

환상적 밸런스의 매콤꾸덕함!

# 신라면툰바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해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 맛 그대로!